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화장의 역사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조선 시대 여성들이 내면과 외면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위해 자연스러운 화장을 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 시대 화장 문화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분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대답을 듣고) 모르시는 분이 많네요. 분대는 화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분을 바른 얼굴과 먹으로 그린 눈썹이라는 뜻으로 당시에 피부화장과 눈썹 화장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피부 화장은 기초화장과 색조 화장으로 나뉘는데 기초화장 단계에서는 피부 보습과 미백을 위해 미안수와 면약을 사용했습니다. 미안수는 지금의 로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세미나 오이의 즙으로 만들었고, 면약은 크림 역할을 하는 것으로 꿀과 복숭아꽃 등을 섞어 만들었습니다. (⑦자료 제시) 보시는 것은 미안수와 면약을 담았던 용기인데요, 액체류인 미안수와 달리 면약은 점성이 있고 흐르지 않아 입구가 넓고 깊이가 얕은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면약 용기에 문양이 보이시죠? (대답을 듣고) 네, 바로 꽃문양인데요, 용기에 꾸밈새를 더하기 위해 화훼 문양을 그려 넣기도 했는데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을 주로 그렸습니다.

기초화장을 마친 후에는 백분으로 색조 화장을 했는데, 쌀과 잡곡 가루를 섞어서 만든 백분은 주원료가 곡식이었기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졌습니다. (⑮자료 제시) 이 도구들은 백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분첩시에 백분을 덜어 물에 간 후, 솜을 동그랗게 뭉친 분첩으로 두드려 발랐는데요, 분첩이 없을 때는 물에 간 백분을 손으로 바르고 낫잠을 자면 수면 중에 피지가 분비되어 잘 스며들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날에는 백분 화장을 하기 전에 얼굴을 더 희게 하기 위해 백분을 물에 개어 빌랐다가 씻어 내는 분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피부 화장만큼 중요한 단계는 눈썹 화장인데 여성 생활 지침서였던 『규합총서』에 ‘십미요’라고 부르는 열 가지 눈썹 모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⑯자료 제시) 그중에서도 그럼 속 눈썹처럼 가늘고 동그랗게 휘어진 형태를 가장 선호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위해 눈썹 털을 쪽집게로 정리하고 나뭇가지나 꽃잎을 대운 재로 만든 미묵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시대의 피부 화장과 눈썹 화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발표를 듣고 나니 백옥 같은 피부에 초승달 같은 눈썹 모양을 한 당대 여성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청중을 둘러보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②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③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며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④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청중이 발표를 듣고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장품의 제형에 따라 용기 형태가 달랐음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1]을 ⑦에 제시하였다.
- ② 화장품 용기에 화훼 문양을 그려 넣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 1]을 ⑦에 제시하였다.
- ③ 백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2]를 ⑮에 제시하였다.
- ④ 사용 목적에 따라 백분의 제조 과정이 달랐음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2]를 ⑯에 제시하였다.
- ⑤ 십미요 가운데 가장 선호했던 눈썹의 모양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3]을 ⑯에 제시하였다.

3.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생 1: 조선 시대에 백분으로 하는 색조 화장 이외에 다른 색조 화장은 없었을까? 신부가 혼례를 올릴 때 불과 입술을 붉은색으로 화장을 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

학생 2: 그래? 붉은색으로 색조 화장을 하면 혼례식에서 신부의 얼굴이 더 돋보였겠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눈썹 화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학생 1: 응, 맞아. 그런데 나는 십미요에 해당하는 다른 눈썹 모양들이 궁금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어.

학생 2: 나도 그랬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십미요에 해당하는 다른 눈썹 모양을 찾아봐야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듣고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상대에게 확인하고 있다.
- ③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④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발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계획하고 있다.
- ⑤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궁금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4~7] (가)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기사문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표제] ‘초록누리’, ○○생태원 방문해

[전문] 지난 9월 □일, 우리 학교 환경 동아리인 ‘초록누리’ 학생들이 ○○생태원을 방문하는 동아리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문] 우리 학교 환경 동아리인 ‘초록누리’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동아리 체험 활동은 ‘초록누리’ 동아리 학생들과 참가를 신청한 학생 20명이 함께했다. 학생들은 이날 오전, 새롭게 개관한 ○○생태원을 방문하여 수생 식물원과 기후 체험관을 차례대로 둘러보았다.

또한 참가자들은 ○○생태원 관람을 마치고, 오후에는 생태 교육 지도사와 동행하여 ○○생태원 외부에 있는 ○○늪 습지로 이동하였다. ○○생태원에서는 이달의 멸종 위기 생물종을 소개하는 잡지를 발행했다. ○○늪 습지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을 직접 찾아보고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에는 습지 보전을 위해 그 주변에 벼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체험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초록누리’ 동아리 회장인 김△△ 학생은 “이번 활동을 통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9월 ◇◇일 수요일에 ‘초록누리’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활동에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

학생 1: ⑦ 기사문을 처음 써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
조언 좀 부탁해도 될까?

학생 2: 좋아. 우선 표제부터 살펴볼까? 표제에는 기사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이 드러나야 하는데, 현재의 표제만으로는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행사의 의미도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학생 1: ⑧ 표제에 동아리 체험 활동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그 행사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해 보라는 말이지?
그렇게 수정할게. 전문은 어때?

학생 3: 전문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 2: 나도 동의해. ⑨ 육하원칙을 고려하면 지금 쓴 전문에 활동 목적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학생 3: 맞아. 그리고 전문만 보면 ○○생태원만 방문하고 ○○늪 습지는 가지 않았다는 뜻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 체험 활동 장소를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A]

학생 2: 좋은 생각이야. ○○늪 습지도 언급해 주면 활동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다.

학생 1: 알았어. 그러면 활동 목적과 활동 장소를 추가해서 전문을 수정해 볼게.

학생 3: 다음은 본문에 대해 말해 보자.

학생 1: 본문은 이번 행사에서 진행된 주요 활동을 언급하고 행사에 참가한 학생의 소감을 소개했는데, 괜찮아?

학생 2: ⑩ ○○생태원 외부에서 진행한 활동 내용은 구체적인데 생태원 안에서 진행한 활동에 대해서는 방문한 장소만 언급한 점이 아쉬워.

학생 3: 맞아. 그리고 중간에는 기사문의 흐름과 상관없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

학생 1: 그럼 생태원 안에서 진행한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사문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삭제할게.

학생 2: 그런데 ‘초록누리’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홍보 내용이 부족한 것 같지 않아? 활동의 취지와 구체적인 활동 내용도 함께 소개해 주면 좋겠어. [B]

학생 3: 맞아. 그렇게 수정하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1: 고마워. 그 내용도 추가해 볼게.

학생 2: 참, 기사문의 마지막 부분에 ○○늪 습지는 람사르 협약 사무국이 지정한 생태 습지로 보전 가치가 높다는 내용을 소개하기로 했잖아? 그 내용을 넣어야 할 것 같아.

학생 3: ⑪ 그런데 기사문이 실릴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 글의 분량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 그 내용까지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학생 1: 그러면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할게. 도와줘서 고마워.

학생 2, 3: 기사문 쓰느라 고생 많았어.

4. (가)에 활용된 글쓰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아리 체험 활동의 장단점을 나열의 방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② 동아리 체험 활동의 진행 과정을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③ 동아리 체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을 원인과 결과의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 ④ 동아리 체험 활동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 ⑤ 동아리 체험 활동 내용을 이전에 진행한 다른 행사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5.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⑦~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⑦ : 기사문을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발화이다.
- ⑧ : 기사문의 표제와 관련된 상대의 발언을 자신이 이해한 말로 재구성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 ⑨ : 기사문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고려하여 상대가 작성한 글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정보를 제시하는 발화이다.
- ⑩ : 기사문의 형식적 특징을 언급하며 기사문이 지닌 구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화이다.
- ⑪ : 기사문의 분량을 언급하며 상대가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전달하는 발화이다.

6. [A], [B]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2'는 상대와 자신의 견해 차이를 확인한 후, 상대의 발화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3'은 상대의 의견이 가진 한계점을 지적한 후, 자신의 의견과 결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에서 '학생 2'와 [B]에서 '학생 3'은 모두,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⑤ [A]에서 '학생 3'과 [B]에서 '학생 2'는 모두, 질문의 방식으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7. (나)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를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표제 수정하기
→ '환경 동아리 '초록누리', 생태 체험 활동으로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아'로 수정해야겠군. ⑦
- 전문 수정하기
→ '지난 9월 □일,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 학교 환경 동아리인 '초록누리' 학생들이 ○○생태 원과 ○○늪 습지를 방문하는 동아리 체험 활동을 진행 하였다.'로 수정해야겠군. ⑧
- 본문 수정하기
→ 첫째 문단 마지막에는 '그곳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기후대에 서식하는 수생 식물종을 관찰하고, 가상 현실 콘텐츠를 활용하여 극지방의 기후 환경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를 추가해야겠군. ⑨
- 둘째 문단 두 번째 문장은 글의 흐름에서 통일성을 저해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삭제해야겠군. ⑩
- 셋째 문단 두 번째 문장은 '또한 '초록누리' 동아리는 9월 □□일 수요일에 있을 캠페인 활동에서 생태 웹툰 그리기, 폐품 공예 활동, 새활용 장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로 수정해야겠군. ⑪

① ⑦ ② ⑧ ③ ⑨ ④ ⑩ ⑤ ⑪

[8~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버스 정류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청에 건의하는 글을 쓰려 함.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박□□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목적은 ◇◇구청에 버스 정류장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승객이 안전하게 버스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 정류장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버스 정류장 경계석에 미끄러져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버스 정류장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저희 동네의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따라서 버스 정류장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버스 정류장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저희 동네의 버스 정류장은 바닥이 고르지 않고 과순된 벤치가 많아 승객들이 넘어지거나 긁히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정류장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한다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버스 정류장에서의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버스 정류장의 경계석이 미끄러워져 승객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계석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정차할 공간이 부족해 버스를 도로 중간에 세우곤 합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이 버스 승하차를 도로에서 하는 위험한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 버스 승하차 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8.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⑦~⑪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버스 정류장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글을 쓰게 된 목적을 언급해야겠어. ⑦
- 버스 정류장 안전사고의 사례를 제시해야겠어. ⑧
- 버스 정류장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제시해야겠어. ⑨
- 버스 정류장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겠어. ⑩
- 버스 정류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졌을 때의 기대 효과를 제시해야겠어. ⑪

① ⑦ ② ⑧ ③ ⑨ ④ ⑩ ⑤ ⑪

9.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ㄴ. 신문 기사

차도와 버스 정류장의 경계를 구분하는 경계석은 비나 눈이 올 경우 승객들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경계석에 미끄럼 방지 시트를 설치했다. 미끄럼 방지 시트는 표면에 특별한 질감이나 패턴을 적용해 마찰력을 높임으로써 미끄러짐을 방지하는데, △△시에서는 미끄럼 방지 시트를 설치한 이후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한 미끄러짐 사고가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트에는 버스 정류장 주정차 금지 문구를 삽입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해당 구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알릴 수 있다.

ㄷ. ◇◇구민 인터뷰

“버스 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차도로 나가서 버스를 타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나가지만, 교통사고가 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차도로 나가지 못해 버스를 놓친 적도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교통 표지가 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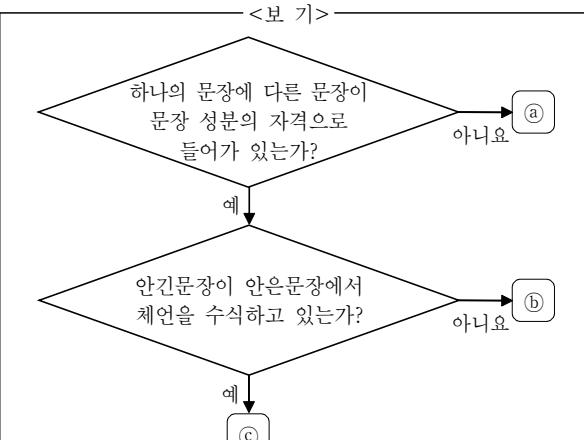
- ① ㄱ-1을 활용하여, ◇◇구의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버스 정류장 안전 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2문단에 보강한다.
- ② ㄱ-2를 활용하여, ◇◇구에서 발생한 버스 정류장 안전사고 유형 중 넘어짐 사고와 파손된 시설에 의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50%를 넘는다는 내용을, 버스 정류장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과 수리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3문단에 보강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구민들이 버스에 탈 때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버스 이용에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의 필요성으로 5문단에 추가한다.
- ④ ㄱ-2와 ㄴ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미끄럼 방지 시트를, 버스 정류장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4문단에 추가한다.
- ⑤ ㄴ과 ㄷ을 활용하여, 경계석에 설치하는 미끄럼 방지 시트에 문구를 삽입하여 교통 표지를 따르지 않는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버스 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5문단에 추가한다.

10. 다음은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건의문을 마무리할 때는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쓰되, 건의가 수용되었을 때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요.

- ① 버스 정류장에 충분한 대기 공간이 마련된다면, ◇◇구 구민들의 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버스 정류장과 그 주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면, ◇◇구 구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버스 정류장과 그 주변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해결된다면, ◇◇구 버스 정류장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버스 정류장의 시설이 개선되어 깨끗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구청은 ◇◇구 구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⑤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버스 정류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1. <보기>의 ⓐ~ⓒ에 들어갈 문장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자료]

- ㄱ.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ㄴ. 나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 ㄷ. 그녀는 누구보다도 마음 씽씽이가 크다.
- ㄹ. 옆집에 사는 친구와 요즘 매일 학교에 같이 간다.

	ⓐ	ⓑ	ⓒ
①	ㄴ	ㄷ	ㄱ, ㄹ
②	ㄴ	ㄷ, ㄹ	ㄱ
③	ㄷ	ㄴ	ㄱ, ㄹ
④	ㄱ, ㄷ	ㄴ	ㄹ
⑤	ㄱ, ㄹ	ㄷ	ㄴ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 원칙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규범이다. 그러나 언어생활 중 표준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발음을 구사하는 경우가 있다.

①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따르면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받침을 그대로 옮겨 뒤 음절 첫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연음이라 부른다. 이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②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하여 표준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무를 이’는 홀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르피]로 발음해야 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하여 [무르비]로 잘못 발음하기도 한다. 또한 음운 변동 없이 연음만 일어나야 하는 환경에서 ③ 구개음화를 잘못 적용하여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술을’은 앞말의 받침 ‘ㅌ’ 뒤에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가 결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틀]로 발음해야 하는데, [소줄]로 잘못 발음하기도 한다.

[A] 겹받침의 발음도 혼동하기 쉽다.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르면, 겹받침 ‘ㄱ’, ‘ㄴ’,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ㅁ, ㅂ]으로 발음해야 한다.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해야 하고, ‘넓-’은 ‘넓죽하다’와 ‘넓둥글다’의 경우 [넙]으로 발음해야 한다. 다음으로 표준 발음법 제11항에 따르면, 겹받침 ‘ㄺ, ㄻ, ㄻ’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ㅋ]로 발음해야 한다. 또한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르면,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고,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①~⑤의 비표준 발음이 나타나는 이유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예	표준 발음	비표준 발음
① 맨이	[마지]	[마디]
② 이웃에게	[이우세계]	[이우데계]
③ 안팎을	[안파끌]	[안파글]
④ 속을	[수출]	[수들]
⑤ 술이	[수치]	[수티]

- ① ①는 ⑦을 적용해야 하는데 ⑤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 ② ⑥는 ⑦만 적용해야 하는데 ⑦을 적용한 후 ⑦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 ③ ④는 ⑦을 적용한 후 ⑦을 적용해야 하는데 ⑦만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 ④ ⑤는 ⑦을 적용한 후 ⑦을 적용해야 하는데 ⑦만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 ⑤ ⑥는 ⑦만 적용해야 하는데 ⑦을 적용한 후 ⑦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13.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넓다’는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라 [널따]로 발음해야겠군.
- ② ‘맑다’는 표준 발음법 제11항에 따라 [말따]로 발음해야겠군.
- ③ ‘뚫고’는 표준 발음법 제11항에 따라 [물꼬]로 발음해야겠군.
- ④ ‘몫이’는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라 [목씨]로 발음해야겠군.
- ⑤ ‘여덟이’는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라 [여덜비]로 발음해야겠군.

14. <보기>의 ⑦, ⑧에 해당하는 예끼리 뚫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생 : ‘내가 공을 집어 던졌다.’의 ‘집어 던졌다’는 뛰어 쓰는데, ‘직책을 집어던졌다.’의 ‘집어던졌다’는 왜 붙여 쓰나요?

선생님 : ‘직책을 집어던졌다.’에서 ‘집어던지다’는 합성 동사로, ‘일이나 행동을 그만두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집다’와 ‘던지다’의 의미를 단순히 합한 것과는 다르죠? 합성 동사는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뛰어쓰기를 하지 않고, ‘직책을 집어 멀리 던졌다.’처럼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들어갈 수 없어요. 반면 ‘내가 공을 집어 던졌다.’의 ‘집어 던지다’는 ‘내가 공을 집었다.’와 ‘내가 공을 던졌다.’와 같이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하기 때문에 본용언 + 본용언 구성으로 볼 수 있어요. 이때의 두 용언은 반드시 뛰어 써야 하며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관련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학습 활동]

- 문장의 의미에 유의하여 합성 동사와 본용언 + 본용언이 포함된 예를 각각 들어 보자.

합성 동사가 포함된 문장	본용언 + 본용언이 포함된 문장
⑦	⑧

- ① ⑦: 아이가 저 돌다리를 참 잘도 건너뛴다.
⑧: 학급 회장은 우리 차례를 건너 뛰었다.
- ② ⑦: 우리는 구태의연한 관습을 벗어던졌다.
⑧: ⑦: 오빠는 집에 와서 모자를 벗어 던졌다.
- ③ ⑦: 사람들이 그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렸다.
⑧: ⑦: 그는 썰매를 선반 위에서 끌어 내렸다.
- ④ ⑦: 너는 왜 나를 못 뜯어먹어서 안달이니?
⑧: ⑦: 소가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는다.
- ⑤ ⑦: 그녀는 큰 개를 보고 겁을 집어먹었다.
⑧: ⑦: 동생은 언니 몰래 과자를 집어 먹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중세 국어에서 주체 높임은 주로 선어말 어미 ‘-시-/ -샤’ 또는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었다.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습(습)-/-좁(좁)-/-습(습)’이나 특수 어휘, 조사에 의해 실현되었다.

<자료>

- ㄱ. 文殊(문수) | 摩耶(마야)의 請(청)호 수 병사드
[문수가 마야께 청하시되]
- ㄴ. 太子(태자)를 빼려 안수 바 夫人(부인)의 모셔 오니
[태자를 쌔 안아 부인께 모셔 오니]
- ㄷ. 耶輸(야수) | 그 괴별 드르시고
[야수가 그 소식을 들으시고]

- ① ㄱ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주체인 ‘文殊(문수)’를 높이고 있군.
- ② ㄱ에서는 조사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객체인 ‘摩耶(마야)’를 높이고 있군.
- ③ ㄴ에서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인 ‘太子(태자)’를 높이고 있군.
- ④ ㄴ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객체인 ‘夫人(부인)’을 높이고 있군.
- ⑤ ㄷ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주체인 ‘耶輸(야수)’를 높이고 있군.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푸코는 개인과 권력의 관계를 고찰하여 권력의 본질은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기술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주권 권력, 규율 권력, 생명 권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권력의 양상이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푸코에 따르면 고대부터 존재한 주권 권력은 군주의 뜻을 담은 법에 기반하여 작동하였으며 군주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형을 비롯한 신체에 대한 형벌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위법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군중의 공포를 유발해 군주에 대한 복종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주권 권력의 강압적 성격은 오히려 군중의 반발을 일으키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형벌은 비공개적으로 행해지게 되었으며 주권 권력은 점차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다. 푸코는 16세기 이후 등장한 규율 권력으로 인해 개인이 규율이라는 외부의 통제를 점차 내면화하여 타인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규율 권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길들여 유순하고 생산력이 뛰어난 개인을 만들어 냈으며, 감옥, 학교, 군대 등의 사회 제도를 통해 나타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그물망처럼 섬세하게 작동하여 개인의 생활 양식 전반을 지배했다고 보았다.

17세기 이후 근대 국가의 형성과 산업 혁명이라는 정치·경제적 변화가 진행되자 인구가 국가 역량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

었다. 따라서 국가가 인간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여 출생률, 사망률, 수명, 건강 상태, 질병 등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는데 푸코는 이렇게 작동하는 권력을 ⑦ 생명 권리라고 불렀다. 안정된 인구를 확보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종이 지니는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에 대해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는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이 이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다고 보았다. 푸코는 규율 권리와 생명 권리의 작동이 개인을 통제하고 인구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국가가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또한 푸코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은 권리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 즉 권리가 작동하는 방식이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에서 점차 최소한의 권리만 관여하여 개인의 욕망과 방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개인은 스스로를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푸코는 ⑧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허구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주체성은 권리에 대한 저항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이때 저항은 권리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고 모순을 찾아 예속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저항을 통해 개인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생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신유물론은 근대의 서구 철학이 인간의 인식을 우선시하여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수많은 물질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 ⑨ 빠졌다고 비판하고, 배제된 물질의 가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합의하며 출발하였다. 신유물론자들은 특히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생태 위기가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또한 푸코의 생명 권리가 인간 생명에 한정되어 해석되었다고 보아 인간 이외의 생명으로 그 논의를 확대하고자 시도했다.

라투르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동식물과 미생물 등 인간 이외의 다양한 존재들을 비인간이라 칭하며 이들도 과학 기술의 발전에 역동적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비인간 역시 행위성을 지닌 행위자임에도 인간이 이들을 수동적 객체로 보고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 인류세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인류세란 인간 활동이 기후 변화, 생물종 다양성 상실 등의 위기를 초래했음을 부각하기 위해 제안된 지질학적 시기의 명칭이다. 라투르는 인간이 인류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동등한 행위자가 만든 수평적 연결망이며, 인간 존재는 수많은 행위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러웨이 역시 생태를 바라보는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반려종’이라 칭하며, 반려종 간의 공생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축산 동물이나 실험동물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이 다른 존재를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인간 이외의 존재를 인간과 공생하는 반려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생태에 대한 평등한 시선은 반려종 간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인류세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해러웨이의 이러한 생각은 생명에 가해지는 통제와 조절에 대한 논의를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에게까지 확장하여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한 ⑤ 인간 너머의 생명 권리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의 사유 방식에 도전한 신유물론자들의 생각은 새로운 관점에서 비인간을 바라보게 해 주며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특정 학자가 정의한 권력의 개념을 다른 학자가 제시한 개념과 비교하여 권력의 본질을 분석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생명 권리에 대한 학자들 간의 논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가 규명한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이를 결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특정 학자의 사상에서 보이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나)는 특정 학자가 제안한 생명 권리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권력의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나)는 생명 권리에 대한 특정 학자들의 새로운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푸코는 주권 권력이 그 효과를 잊고 점차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다고 보았다.
- ② 푸코는 주권 권력이 법에 따라 작동하며 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 ③ 라투르는 생태 위기가 근대 서구 철학에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 ④ 라투르는 비인간과 인간 모두를 역동적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보고 이들이 낸 수평적 연결망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이룬다고 보았다.
- ⑤ 해러웨이는 반려종 간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를 통해 인류세의 극복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18. ⑧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의 삶이 권력에 의해 최대한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② 개인의 자율적 행위도 권력의 작동으로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③ 개인이 권력의 작동에 의해 새롭게 자신의 삶을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④ 개인이 권력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여 자기 생활 전반을 규율에 예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⑤ 개인이 권력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 ⑦과 ⑧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은 인간의 생명 관련 문제가 국가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며 등장하였고, ⑧은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등장하였다.
- ② ⑦은 인간과 비인간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반성할 수 있게 하였고, ⑧은 인간 이외의 생명이 겪는 통제에 대해 저항할 수 있게 하였다.
- ③ ⑦은 인간종의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을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하게 하였고, ⑧은 동물 실험에 기반한 생물학의 발전을 통해 인류세를 극복하게 하였다.
- ④ ⑦은 근대 국가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유도해 산업 혁명을 초래하게 하였고, ⑧은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비인간과의共生 관계를 도모하게 하였다.
- ⑤ ⑦은 국가가 개인을 통제함으로써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⑧은 인간 생명을 통제하여 반려종과 책임 있는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20.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류 독감은 바이러스성 병원체를 통한 감염병으로, 인간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기에 국가 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조류 독감의 병원체는 끊임없이 변형되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으며, 집단 사육되는 가금류의 경우 보통 집단 감염의 형태로 나타난다. 조류 독감이 발병하면 예방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금류는 경제적 피해가 크더라도 모두 살처분 및 폐기한다. 또한 인간이 감염되면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폐렴증이나 호흡 곤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① 푸코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기관이 조류 독감 문제를 직접 관리한 것은 조류 독감을 인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위험 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이겠군.
- ② 푸코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발병 지역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도록 정한 것은 인간 생명에 관한 문제에 권력이 개입한 것에 해당하겠군.
- ③ 라투르의 관점에서 볼 때, 조류 독감의 확산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성이 만들어 낸 결과로 보아야 하겠군.
- ④ 라투르의 관점에서 볼 때, 조류 독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해당 병원체를 인간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보아야 하겠군.
- ⑤ 해러웨이의 관점에서 볼 때, 발병 지역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행위는 동물을共生 관계가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겠군.

21. ⑨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 결정으로 인해 회사가 혼란에 빠졌다.
- ② 기운이 빠진 그녀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 ③ 깊은 잠에 빠진 그는 일어날 줄을 몰랐다.
- ④ 그녀의 실력은 동료들에 비해 빠지지 않는다.
- ⑤ 예상대로 그 친구는 이번 동창회에 또 빠졌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열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며, 물체와 공기의 온도 차가 클수록 열전달이 활발해진다. 그런데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체로 열전달이 일어나면 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분자를 간의 결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체로의 상변화가 활발해진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어떤 물체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을 건조라 한다. 단위 시간 동안 물체에서 증발하는 수분의 양을 건조 속도라 하고, ⑦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건조 속도는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진다. 일상에서 건조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는데, 의류 건조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의류 건조기는 가열 장치를 통해 공기를 일정 온도까지 가열한 후, 이를 세탁물이 있는 드럼으로 이동시킨다.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 드럼으로 일정한 온도의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데, 일반적으로 세탁물의 온도가 공기의 온도보다 낮으므로 세탁물로 열전달이 일어난다. 또한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1m^3$ 속에 수증기가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양인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그 결과 같은 부피 내에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수분 증발이 촉진된다.

한편, 드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조 과정은 세탁물의 수분 함량 비율인 합수율과 건조 속도에 따라 예열 구간, 항률 건조 구간, 감률 건조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예열 구간은 건조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고온의 공기에 의해 세탁물의 온도가 상승하며 건조 속도가 빨라진다. 이 구간은 건조 과정 초반으로 세탁물의 합수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항률 건조 구간에서는 세탁물로 전달된 열에너지가 수분 증발에 집중적으로 쓰여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어도 세탁물의 온도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또한 세탁물에 공급되는 열에너지가 일정하므로 증발되는 수분의 양도 일정하고, 이 때문에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습도도 일정하다. 반면 건조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소모되어 공기의 온도는 드럼으로 유입될 때보다 드럼에서 빠져나올 때 더 낮아진다. 건조가 진행되면서 세탁물의 합수율이 점차 감소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건조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항률 건조 구간에서 감률 건조 구간으로 ⑧ 넘어가게 된다.

감률 건조 구간에서는 세탁물에서 증발할 수 있는 수분이 계속 감소하여 건조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그러다가 주어진 건조 조건에서 최대로 증발될 수 있는 수분이 모두 증발되면 건조 속도가 0이 되어, 더 이상 건조는 진행되지 않고 세탁물의 온도만 높아진다. 또한 건조 종료 직전에는 세탁물의 온도는 높고 수분 함량은 낮아 드럼으로 유입된 공기가 열에너지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로 드럼에서 배출된다. 따라서 드럼으로 들어가는 공기와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온도 차가 줄어든다. 이를 이용하면 건조가 완료되는 시점을 예상하여 건조기 작동을 마치도록 건조기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다.

세탁물에서 증발한 수분은 완전히 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건조기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에 따라 의류 건조기를 ⑦ 배기식 건조기와 ⑧ 응축식 건조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드럼에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실외로 ⑨ 이어지는 별도의 배기 장치를 통해 배출된다. 반면 후자는 수증기가 다시 액체 상태로 바뀌어 물통이나 배수구를 통

해 배출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드럼에서 빠져나온 습한 공기가 열 교환기로 이동하여 냉각된다.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온도인 이슬점까지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가 물로 응축되어 공기의 습도가 낮아지는데, 이때 응축된 물은 건조기 밖으로 배출된다. 습도가 낮아진 공기는 가열 과정을 거쳐 다시 드럼으로 유입되고, 이러한 공기의 순환이 반복되며 건조가 진행된다.

이렇듯 의류 건조기를 사용하면 상온에서의 자연 건조보다 건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건조 과정에서 세탁물이 고온의 공기와 ⑩ 맞닿으며 수축될 수 있고, 특히 천연 섬유는 합성 섬유에 비해 더 많은 수축이 ⑪ 생기는 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등 보다 발전된 건조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2. ⑨ 의류 건조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탁물의 건조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드럼 내에서 공기를 가열하여 세탁물을 건조시키겠군.
- ② 세탁물 건조에 필요한 시간을 상온에서의 자연 건조 시간보다 줄이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군.
- ③ 동일한 조건으로 건조를 진행하더라도 의류 소재에 따라 의류의 수축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군.
- ④ 열전달 원리를 활용하기 위해 건조 과정 동안 일정한 온도의 공기를 드럼으로 계속 유입시키겠군.
- ⑤ 드럼으로 유입되는 공기와 드럼에서 배출되는 공기의 온도 차에 따라 작동 종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겠군.

23. ⑦과 ⑧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은 ⑧과 달리 수증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별도의 배기 장치가 필요하다.
- ② ⑦은 ⑧과 달리 세탁물에 있던 수분이 상변화를 거쳐 기체 상태로 바뀐 후 드럼에서 빠져나온다.
- ③ ⑧은 ⑦과 달리 공기가 열 교환기를 거치며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모두 낮아진다.
- ④ ⑧은 ⑦과 달리 작동 과정에서 수증기를 물로 응축시켜 물통이나 배수구를 통해 배출시킨다.
- ⑤ ⑧은 ⑦과 달리 드럼에서 빠져나온 공기가 가열 과정을 거쳐 다시 드럼으로 유입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24. ⑩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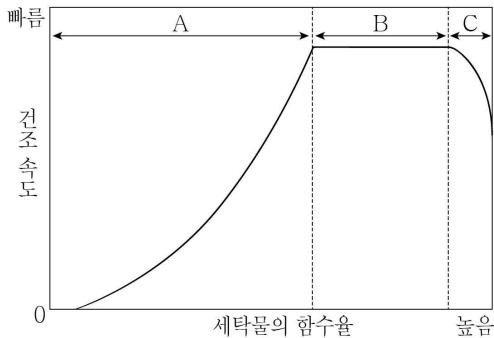
- ① 물에서 수증기로의 상변화가 촉진되어 물체와 공기 사이의 열전달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 ② 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물체에 존재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 ③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물체에서 공기로의 열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상변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 ④ 공기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증발이 활발해지고 같은 부피에서 더 많은 수분이 증발될 수 있기 때문에
- ⑤ 물 분자들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수분 증발이 촉진되기 때문에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다음은 의류 건조기에서 세탁물이 건조되는 동안 나타나는 세탁물의 함수율과 건조 속도의 변화를 표시한 그래프이다.

(단, 모든 구간에서 건조기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 및 건조기 내부의 압력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① A 구간에서 그래프가 가로축과 만나는 지점의 함수율은 건조가 끝나는 시점의 세탁물의 함수율이겠군.
- ② B 구간에서 세탁물의 온도와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습도는 각각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겠군.
- ③ B 구간에서 세탁물의 함수율은 계속 감소하지만 단위 시간당 세탁물에서 증발하는 수분의 양은 일정하겠군.
- ④ C 구간에서는 세탁물의 수분 증발에 쓰이는 열에너지가 점차 감소하여 세탁물의 온도가 상승하겠군.
- ⑤ 각 구간에서 세탁물의 평균 온도는 A 구간이 가장 높고, C 구간이 가장 낮겠군.

26. 문맥상 ①~⑤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⑤: 이전(移轉)하게
- ② ⑥: 소거(消去)되는
- ③ ⑦: 연동(聯動)되는
- ④ ⑧: 대면(對面)하며
- ⑤ ⑨: 발생(發生)하는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니 말을 빌리자면 오빠는 “머리는 좋은데 과거 운이 없어” 중학 입시에서 떨어지고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떨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학급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오빠가 겨우하는 목표는 수재들만 모인다는 세청 일류 학교들이었던 것이다.

대학의 경우는 좀 달랐다. 큰 배의 선장이 되어 먼 바다로 나가겠다는 것이 오빠의 꿈이었다. 그러나 해양대학에 응시한 오빠는 두 헤 거푸 신체검사에서 걸려 필답 고사도 치르지 못하고 낙방을 했다. 어머니는 2차 대학의 비교적 약한 과를 택해 응시하기를 종용했으나 오빠는 막무가내로 3수에 들어갔다. ⑦ 그렇다고 별반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뺨늦게 술내

를 풍기며 들어오는 일이 잦았다. 당구가 3백이니 4백이니 하는 걸 보면 학원보다 당구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했다. 아직 훤히 대낮에 이미 한잔 걸친 별건 얼굴로 내가 근무하는 출판사 부근에서 빙빙 돌다가 돈을 몇 푼 받아줘고 패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술집으로 들어가는 일도 자주 있었다. 주판을 놓다가, 수금원들과 입금액 때문에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다가 문득 고개를 들 때 설핏 창가를 스치는 오빠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 결과 세 해째는 누군가 일러준 묵책대로 웬티 속에 저울 추를 숨겨 그럭저럭 신체검사는 통과했으나 필답 고사에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이러한 오빠를 두고 “제 실력과 적성에 맞는 과, 밀하자면 약학 대학쯤 들어가 졸업하면 약방을 차리고 역시 약사나 교사를 만나 결혼해서 두 손 맞잡고 별면 곧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엉뚱한 귀신이 쏙여 인생 망쳤다.”라고 가슴을 쳤다.

이러한 어머니에게 오빠는 차마 마주 대거리를 하지 못하고 내게 엎구리를 찌르듯 숨기며 말하곤 했다.

인생이 다만 그런 것뿐이라면 허전하고 쓸쓸해서 어떻게 살겠나.

사람마다 분수라는 게 있다는 것, 사는 일이 어렵다는 것, 무엇보다 생활의 안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⑤ 어머니의 생각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나였지만 그러나 또한 오빠는 그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에 애매하게 웃어보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 느낌이라는 게 기실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확신도 아니고 뚜렷한 근거를 가진 것도 아닌, 다만 스무 살 나이에 이미 헌 옷가지처럼 남루히 널린 기존의 삶 중 하나를 둘러쓰기 시작한 나 자신의 오빠에 대한 바람—막연한 생각이지만 우리네 사는 삶과는 좀 다른 형태, 다른 색채의 인생을 살아주기를 바라는—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몰랐다.

(종략)

오빠는 말했다.

“이번 한 번만 한밀천 해 주시면 일 년 안에 몇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단돈 오십만 원이란 말씀이에요. 이번에 다시 실패하면 그때에는 정말 수도 검침원이든 버스에서 잡상인이 되든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전증이 있을 리 없건만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4절로 접은 종이쪽지를 펴 보였다.

용산 야채 시장에 벌일 사업 계획서였다.

“새벽 네 시에 문 열어 여덟 시면 과장이에요, 밤새워 지방으로부터 올라온 야채는 부르는 게 값, 매기는 게 값이에요.”

두둑한 배포와 빠른 눈치작전이면 불과 서너 시간 장사로 ‘쇼부’를 치고 남들 하루 종일 빼 빼지게 일하는 몇 배를 번다고 했다.

그때 우리가 들어 있던 사글셋방 보증금이 이십만 원이었다.

어머니는 숟가락 돌아앉아 있었다. 그러한 어머니의 등에 대고 오빠는 흡사 장터의 야비위꾼처럼 유창한 달변으로, 그러나 ⑥ 꼭 설득시켜야 한다는 초조감과 악간힘으로 쉴 새 없이 눈을 굽리며 사업의 밝은 전망에 대해 늘어놓았다. 그동안에도 얇은 눈꺼풀은 마파람에 떠는 문풍지처럼 쉬지 않고 과르락과르락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빠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입만 가지고 하는 장사는 사기밖에 없다. 행여 어미가 있거나 동생이 있거나 생각지 말고 지게벌이를 하더라도 혼자

살아갈 방책을 세우도록 해라. 나는 이제 아무 힘이 없다.”
그리고 어머니는 원손 무명지에 끼고 있던 세 돈쯤 **금반지**를 뽑아 오빠 앞에 밀어놓았다.
어머니로서는 유일하게 지닌 패물로, 죽을 때까지 끼고 있다가 마지막 저승 갈 노자나 하겠다던 거였다.

멈칫멈칫 그것을 쟁겨 넣고, 저녁을 먹고 가라고 불드는 나를 뿌리치고 집을 나가는 오빠는 울고 있었다.

그것이 오빠를 본 마지막이었다.

거의 이 년 전 울릉도에서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있다는 엽서를 받았을 뿐으로는 도대체 그 왜소하고 허약한 체구로 어부가 되어 살아갈 모습이 잡히지 않았다.

갖춰야 할 식도 치르지 않고 그냥저냥 만나 살아간다는 스무 살이 갓 넘은 어린 올케도, 8개월이 지나도록 뒤채지도 못할 정도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조카의 모습도, 그들이 얹혀 살아갈 그 ‘생활’이라는 것도 도시 짐작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또한 모를 것이 어찌 ‘그들의 생활’뿐일까.

연말인 탓에 우체국은 창구마다 사람들이 들끓었다. 송금 업무 창구에도 거의 출입문까지 줄이 이어져 있었다. 한 삼, 사십 분은 좋이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속으로 한숨을 쉬며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줄의 끝에 이어 섰다.

손에 천 원권 지폐 서른 장의 부피가 가쁘게 느껴졌다. 우편물이 밀릴 때이니 사나흘 후에나 오빠에게 냥을 것이다. 어쩌면 일주일 후가 될지도 모르고 ④ 오빠는 그동안 누이동생에게서 올 변변치 않은 액수의 송금을 걸고 둘러 쓴 빚을 감당치 못해 벌써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을지도 몰랐다.

오빠의 편지를 받은 후, 이를간의 늄장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는 마음이 급해져 연신 고개를 빼어 앞을 기웃거렸다.

나는 한고비 한고비, 전략이라고나 말해야 할 오빠의 변모를 볼 때마다, ⑤ 지금보다는 돼지를 기를 때가, 그보다는 혈서를 품고 다닐 때가, 아니 그보다는 여선생의 비로드 치마에 얼굴을 물을 때가 더욱 좋았다고 생각하곤 했다.

아니 차라리 나팔 소리 쓸쓸히 울려 퍼지던 저문 날, 오빠의 속삭임에 따라 어디론가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순 맞잡고 달아나자던 때가 얼마나 더 좋았으랴. 지구는 둥글어 한없이 가노라면 결국 떠난 자리에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린 시절, 아이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달아나기를 꿈꾸는 것일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는 차라리 수산업에 손을 대어 한때 재미를 보았으나 **왕창 망해 버렸다는 호기와 허언으로** 어느 날 불쑥 내 앞에 나타날 오빠와 맞닥뜨릴 것을 나는 바라는 것이 아닐까.

— 오정희, 「겨울 뜰부기」 —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빠는 야채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 돈을 벌겠다고 말했다.
- ② 오빠는 속임수를 써서 결국 해양대학의 신체검사를 통과했다.
- ③ 어머니는 오빠가 원하는 대학만을 고집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 ④ 오빠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선 날이 ‘나’가 오빠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다.
- ⑤ 오빠는 야채 시장에서 별일 사업 계획서를 보여 주기 이전에 다른 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28. ⑦~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 ‘~ 들어오는 일이 잣았다’와 ‘~ 것 같기도 했다’를 보면, 서술자가 경험한 사실과 짐작한 내용을 언급하며 인물에 대해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⑧: ‘~지만 그러나 또한’을 보면, 연결 어미와 부사를 연이어 사용하여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의견에 동의해 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⑨: ‘쉴 새 없이 눈을 굴리며’와 ‘눈꺼풀은 마파람에 떠는 문풍지처럼’을 보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판단한 근거를 관용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⑩: ‘~을지도 몰랐다’를 보면, 서술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단정 짓지 않고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⑪: ‘~보다는 ~은 때가’를 반복 사용한 것을 보면, 서술자가 인물의 삶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현재의 삶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금반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오빠에게 주는 심리적 보상이다.
- ② 어머니가 오빠의 꿈을 이루게 하려고 남겨 두었던 마지막 자산이다.
- ③ 오빠가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임을 드러내는 어머니의 경제적 한계이다.
- ④ 오빠가 자신의 이상을 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모성의 결실이다.
- ⑤ 오빠가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켜내기 위해 어머니에게 요구하는 물질적 조력이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소설은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탈출을 꾀하던 오빠의 삶을 서술자인 ‘나’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오빠의 삶에 대해 오빠 자신과 가족들은 각자의 가치관과 태도 등을 드러내는데,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관과 태도는 달라지기도 하고 그대로 유지되기도 한다.

- ① 오빠가 입시에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과거 운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어머니와 ‘학급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인 오빠가 ‘일류 학교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 ‘나’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큰 배의 선장이 되어 면 바다로 나가겠다는’ 꿈을 지녔던 오빠가 보낸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있다는 엽서’의 내용에서, 오빠가 예전에 지니고 있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 오빠에게 ‘약학 대학쯤 들어’같 실력이 있다며 믿음을 드러냈던 어머니는,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는 오빠에게 ‘입만 가지고 하는 장사는 사기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오빠에 대한 불신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오빠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어머니와 ‘인생이 다만 그런 것뿐이라면 허전하고 쓸쓸해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오빠의 모습을 통해, 삶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군.
- ⑤ 오빠가 ‘우리네 사는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기를 기대했던 ‘나’는, ‘나’의 바람과는 달리 ‘왕창 망해 버렸다는 호기와 허언으로’ 오빠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며 오빠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음을 드러내고 있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옥소가 노래를 그치고 잔에 술을 가득 부어 나오니 소운성이 술잔을 잡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오언시이거나 칠언시이거나 먼저 지은 것을 본받는 법이니, 혹여 화답하기를 더디게 하지 마십시오.”

말이 끝나자마자 형 한림과 세 동생이 차례로 글을 지어 읽으니 기녀들이 차례로 노래를 부르고 술잔을 내왔다. 이때 손기는 머리를 깊이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반선은 돌아서서 귀밑을 다듬고 있었다. 그것을 본 소운성이 화가 난 듯 얼굴색을 바꾸며 말하였다.

“우리들이 아무리 재주가 보잘것없어 먹을 더럽혔다고 하더라도 손 선생이 어찌 뛰어난 시로 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⑦ 술 먹는 예절은 군대의 명령보다 엄하고 시 짓는 예는 법률보다 더 엄한 것입니다. 위에서 잘못하였으면 그 아래 군사들도 또한 죄가 없지 않습니다. 여봐라! 어서 반선을 잡아 얼굴에 먹을 칠하도록 해라. 그리고 옛날 진나라 석승이 금곡원에서 잔치하면서 시를 짓지 못하면 별로 술 섭 잔을 먹게 한 예를 따라 강물을 마시게 하라.”

좌우의 기녀들이 반선을 잡아 화관을 벗기고 얼굴에 먹을 칠하자 반선이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말하였다.

“첩으로 하여금 글 짓는 신선을 모시게 하지 않고 말 못하는 부처를 받들게 하였으니 이는 첩의 죄가 아닙니다.”

소운성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답하였다.

“⑧ 네가 손 선생을 만난 것은 한 번 손을 잡은 관계가 아니라 백년 인연인 것이다. 네가 이미 손 선생을 모시고 있으니 좋은 싫든 네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제 얼굴에 먹을 칠하였으니 빨리 물을 떠서 손 선생에게 권하여라.”

얼굴에 먹을 꺼멓게 그린 반선이 그제야 뾰로통하게 입을 내민 채 물 사발을 들고 손기 앞으로 나갔다.

배 위의 모든 기녀와 노복들이 풍채가 좋고 당당하며 말이 빛나고 문장이 출중한 소운성을 칭찬하면서, 손기의 거동을 보고는 입을 막고 웃어댔다. 처음에는 억지로 베티고 앉아 있던 손기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얼굴을 배 밑바닥에 박고 일어나지 않았다. 소운성이 손기가 하는 행동과 강물을 먹지 않는 것을 보고 취흥이 더욱 높아져 반선을 꾸짖으며 손기의 뒤통수에 물을 부으라고 명하였다.

이때 수모를 당한 손기는 백 마리 잔나비가 뛰노는 듯 가슴

이 콩쾅거렸다. 하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다만 자기도 모르게 원통한 눈물이 귀밑으로 흘러내렸다. 그 광경을 본 소운성이 황급히 물 사발을 물리치고 엎드려 조문하며 말하였다.

“워낙 재주가 높으신 선생께서 시 한번 읊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⑨ 그런데 이제 슬픈 눈물이 얼굴에 가득한 것을 보니 필연 절친한 사람이 죽었거나 선조의 기일이 가까웠거나 한 까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시와 술로 즐길 것을 청하였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을 사죄드리며 또한 애도의 예를 표합니다.”

말을 마치고는 크게 웃으니 배 위의 모든 사람들이 포복절도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손기는 뱃놀이를 계기로 출가하여 학문과 도술에 통달한 후 돌아온다. 손기는 동서인 소운성을 포함한 처가 식구들과 다시 뱃놀이를 간다.

소운성은 한편으로는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토록 변한 손기에 대하여 의심을 하며 실소하였다. 이후 고 술이 취하고 흥취가 높아지자 형 한림은 거문고를 잡고 소운성은 해금을 가져와 곡조를 타기 시작하였다.

⑩ “우리 모두가 풍류를 도와 손 선생을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 어찌 손 선생은 그대로 계실 뿐 우리들의 즐거움을 돋지 않으시는지요?”

“음률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어찌 구태여 사람마다 다 하겠는가?”

“손 선생이 주역에 정통하여 뜻밖에도 모든 일을 능숙하게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음률 정도를 통하지 못하였겠습니까?”

형 한림과 말을 마치고 난 소운성이 즉시 자리에 있던 옥파리를 손기에게 주며 말하였다.

⑪ “옛날 춘추 전국 시대 조나라의 인상여라는 사람은 자기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진나라 왕에게 장구를 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일을 본받아 손 선생에게 피리를 드리니 한번 불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가 특별히 사양하지 않고 피리를 받아 들고는 배 가장 자리에 기대어 곡조를 연주하였다. 그 소리가 가볍고 아득하게 허공을 깨치며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흘러가던 구름이 멈추고 모래톱에 앉아 있던 기러기가 놀라 울며, 차가운 가을바람이 일어나고 언덕 위에 벼들잎이 다 떨어졌다. 형 한림 형제와 소운성이 다 활짝을 끼고 몸을 웅크린 채로 앉아 들었다. 손기가 세 번째 곡조를 부르니 강물이 솟고 큰 고기가 뛰어오르며, 산에서 물이 다 떨어지고 한 폐의 학들이 공중에서 어지럽게 날며 울었다. 그 광경을 본 소운성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명하니 앉아 있었다. 손기가 피리 불기를 그치고 주위의 하인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대장부가 노는데 어찌 가벼운 풍류만을 즐기겠는가? 큰 북을 가져오라.”

손기가 오른손으로 북채를 잡고 왼손으로 웃짓을 치켜들고는 일어서서 옛날 예양이 조조 앞에서 쳤다고 하는 ‘어양삼과’ 한 곡조를 쳤다. 슬프고 웅장한 북소리가 물 위를 울렸다. 갑자기 달과 별이 한꺼번에 어두워지고 큰 바람이 비를 몰고 왔다. 곧바로 강물이 터지고 붉은 용과 검은 거북이가 펼펼 날뛰자 배가 기울어지면서 물결이 솟아올라 금방이라도 엎어질 듯

하였다. 자리에는 묘진 우레와 번갯불이 내리쳤다. 성품이 엄숙하고 맹렬하며 담력이 있는 소운성이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바닥에 엎드려 두려워 하였다. 형씨 집안의 형제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잠시 후 손기가 북채를 던지고 자리에 앉자 바람이 잦고 물결이 잔잔해지며 달과 별이 다시 밝아졌다.

이 광경을 본 형 한림은 손기의 신기한 조화와 재주에 감탄하였다. 소운성이 어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하고 있자 손기가 웃으면서 소운성을 놀리는 말을 하였다.

“누가 소 상서를 용맹하다 했는가? 북소리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찌 삼군을 거느리는 장수가 되겠는가?”

— 작자 미상, 「영이록」 —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운성은 손기에게 기녀들을 벌할 것을 강요한다.
- ② 손기는 시에 화답해 달라는 소운성의 요구에 침묵한다.
- ③ 반선은 소운성의 질책에 자신이 본분을 어긴 것을 자책한다.
- ④ 세 동생은 손기에게 강물을 먹일 것을 소운성에게 제안한다.
- ⑤ 형 한림은 손기의 연주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운성의 어리석음을 꾸짖는다.

32. ①~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은 사회적 관습을 내세워 상대를 안심시키고 있다.
- ② ⑧은 우월한 지위를 언급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 ③ ⑨은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열하여 자신에 대한 비난을 반박하고 있다.
- ④ ⑩은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⑪은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가 고사 속 인물의 행적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다.

33.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선생님 : 「영이록」에서는 주인공과 대립 인물의 갈등이 반복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연주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①~⑤의 측면에서 비교해 볼까요?

[가]	→	[나]
첫 번째 뱃놀이		두 번째 뱃놀이
비교 기준		
①	갈등의 원인	
②	우열 관계	
③	인물의 능력 제시 방법	
④	주변 인물의 평가	
⑤	방관자 / 중재자	

① ① : [가]와 [나]에서 소운성이 각각 시 짓기와 퍼리 불기를 손기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보아, 대립 인물이 주인공을 곤경에 빠트리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② ⑥ : [가]에서 소운성의 조롱에 원통한 눈물을 흘리던 손기가 [나]에서는 소운성을 놀리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주인공과 대립 인물의 우열 관계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③ ⑦ : [가]에서 소운성은 문장의 출중함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반면 [나]에서 손기는 신기한 조화와 재주로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대립 인물과 달리 주인공의 능력이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부각되고 있습니다.

④ ⑧ : [가]에서 소운성을 비롯한 배 위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손기가 [나]에서는 두려움과 감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주인공에 대한 주변 인물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⑤ ⑨ : [가]에서 형 한림은 소운성의 제안에 따르지만, [나]에서 형 한림은 소운성의 제안을 만류하는 것으로 보아, 방관자였던 인물이 주인공의 요청에 따라 주인공과 대립 인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징금이란 법령, 차지 법규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징금은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인 벌금과 유사하지만, 사법 기관에서 부과하는 벌금과 달리 행정 청에서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된다. 과태료는 경미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 사법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부과하는 반면, 과징금은 특정 법령 [A]을 위반하여 엄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한다. 또한, 경미한 형사 사법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행정 청에서 우선 부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사법 기관의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며, 형벌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과징금은 목적과 성격이 형벌과 다르므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가 행정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에서 과징금 제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큰 범주에서 그 유형을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과 부당 또는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박탈한다는 경제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자의 성격은 모든 제재 처분이 가진 공통점이므로 본래적인 특징은 후자의 성격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이 유형을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라고 한다. 이 유형의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 기존의 몰수·추징 제도가 복잡한 형사 절차로 인해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영업 정지 처분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정 처분이다. 행정청은 영업 허가 등의 수의적 행정 행위를 집행한 후, 영업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 정지로 인해 공공의 편익이 감소할 수가 있어 의료, 복지 분야 등 공공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에 한해 공익적 관점에서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이 도입되었다. 이 유형의 과징금은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영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한다. 이 유형에서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 행정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위반 행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처분을 선택할 수 없고, 공익성 판정에 대한 민원 등 처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① 위반 행위자에게 처분의 명시적인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②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이 처분받은 영업 정지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협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과징금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침의적 행정 행위이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을 따른다.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행정 작용이 행해집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는 부과 및 징수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납부 기한 연기,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침의적 행정 행위의 납용을 방지하고 있다. 과징금은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괄 납부 시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납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하려 할 때에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문서를 통해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과징금 제도는 이러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통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편의를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34.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정청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징금 모두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경미한 형사 사법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특정 법령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은 경미한 행정 법규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은 과징금의 목적이 형벌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법 기관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변형된 과징금은 행정청의 수의적 행정 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②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은 모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 ③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은 기준 물수·추징 제도가 지닌 집행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 ④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달리 변형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자가 행정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은 모두, 침의적 행정 행위의 납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부과된다.

36. ①, ②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업 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는 대등한 제재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반 행위자가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는 ①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볼 수 있군.
- ② 공익성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여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영업 정지 처분의 제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견해는 ②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볼 수 있군.
- ③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근거가 되는 공익성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인 수치로 정량화될 수 없음을 고려한 견해는 ③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볼 수 있군.
- ④ 공익성이 약한 영업 분야에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을 확대하여 처분하면 위법 행위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견해는 ④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볼 수 있군.
- ⑤ 행정 처분 결정에 불복한 위반 행위자가 행정 소송을 진행했을 때 행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견해는 ⑤와 ⑥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볼 수 있군.

3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 약국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 1개월을 사전 통지받게 되었다. 하지만 손해를 우려한 영업자는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행정청에서는 ‘영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약사법의 규정을 근거로,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총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900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처분하였다. 하지만 영업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과징금을 일괄 납부한다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분할 납부를 희망하고 있다.

- ① 1억 원은 영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영업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분할 납부를 행정청에 신청해야겠군.
- ③ 행정청에서는 영업자의 민원을 수용하여 경영 악화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근거로 900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겠군.
- ④ 행정청이 약사법의 규정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영업자의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행정 행위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행정청이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이유는 약국의 영업이 공공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겠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령동을 들어가서 반석 위에 다리 쉴 때
어디서 오는 물이 높은 돌로 떨어지니
뛰느니 구슬이요 뿌리나니 백설이라
① 그만 보고 일어나서 백탑(百塔)을 찾으리라
차츰 차츰 들어가니 돌 구경이 더욱 장(壯)하구나
여래탑과 다진탑과 중명탑과 다보탑과
문탑(文塔) 은탑(銀塔) 여러 탑은 돌 모양이 비슷하다
② 서책을 쌓은 모양 뒤주와 합놓을 고인 모양
갓 모양 우산 모양 돌마다 물형(物形)일세
삼태를 묶은 듯이 총총이 들어서니
앞뒤로 각각 모양 옆을 본즉 또 다르고
가까이 보면 거동 멀리 보니 또 다르다
③ 눈으로 둘러보니 두 눈이 분주하고
손으로 가리키니 두 손이 겨를 없고
입으로 말을 한주 입 하나로 어이하리
정신이 산란하고 생각이 분주하여
금강산 좋은 소문 보태었다 하였더니
이제야 직접 보니 말 모자라 걱정일세
그곳을 지나가니 길이 점점 험하도다
비탈로 돌아갈 때 나무 난간 조심하고
개심대 올라갈 때 숨이 차서 어려워라
낙엽이 묻혔으니 발 디디기 위험하고
휘추리가 얹혔으니 엎드려야 나가리라
백탑이라 하는 것이 들던 것과 다르도다
조각조각 허연 돌을 다식같이 괴였으니
등그렇게 높은 거동 스무 아람 넘으리라
백탑은 이 아니구나 다시 찾아보리로다
폭포수 떨어지는데 겨울 눈 그쳐 있다
얼음을 건너가니 동지 선달 경(景)이로다
길은 끊어져 있고 갈 곳이 전혀 없다
시장하면 어렵기로 솔에 쌀밥 지었더니
따라오던 계집들이 물가에 밥 식히고
갓 벗고 동옷 벗고 맨상투 바람에 미투리 신고
길 없는 물속으로 이 돌 저 돌 건너가며
채삼꾼이 인삼 찾듯 사냥꾼이 매를 찾듯
허기져서 술막 찾듯 밤길 잃고 인가 찾듯
가다 쉬고 쉬다 가서 기어 기어 올라갈 때
새소리도 못 듣거든 인적이야 있겠느냐
만산(滿山)의 막힌 것은 측백나무뿐이로다
햇빛을 가리우고 또 한 탑이 내다르니
죽염죽염 괴인 돌이 백탑에서 몇 배로다
어이한 재주로써 저렇게 만들었는가
세 글자를 새겼으니 다보탑이 여기로다
갈수록 산이 깊어 막다른 골 되었던 말인가
④ 하릴없이 돌아오니 분하고 열없도다
울 적의 올라간 곳 내려올 수 전혀 없어
지팡이와 버선 신을 다 던져 내려놓고
지로승(指路僧)과 하인 시켜 웃통 벗고 내려가서
제 어깨로 내 발 받쳐 주춤주춤 기어나려
⑤ 생각하니 우습도다 구경(求景)이 고경(苦景)일세

[A]

이런 길로 도로 내려 영원암(靈源庵)이 어디던가
미륵봉 장한 거동 놀라움이 끝이 없다
하늘 땅 생길 때에 어느 풀무 뉘 숨씨로
돌 하나를 조작하되 ⑥ 저다지도 영특한가
한적하고 외진 저 암자는 이 세상이 아니로다

– 이상수, 「금강별곡」 –

(나)

을사년 여름 나는 양주에 있는 홍 씨의 장원을 빌려 임시로
몸을 부쳐 살았다. 장원은 도봉(道峯) 아래에 있었다. 어느 날
시우(時雨)가 크게 내려 밤새도록 그치지 않더니만, 이튿날 느
지막이 개는 기색이 있었다. 나는 회룡사(回龍寺) 앞의 폭포의
물줄기가 매우 장관이라는 말을 듣고는 어렵사리 가마를 준비
하여 시내를 건너 둉굴을 헤치고 갔다. 폭포의 물방울이 쏘아
대는 기세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으므로, 폭포 좌측으로 난
길을 통해 결눈질로 멀리 바라보며 마치 버리고 가는 듯 훌쩍
올라갔다. 원류(源流)를 만났는데, 그리 거세게 흐르지 않기에
비로소 옷을 걷어붙이고 건넜다. 언덕을 따라 내려가 오른쪽으
로 폭포를 키 채 암석 위에 앉아 아래를 굽어보았다. 물이 도
봉에서 빌원하여 대략십 리쯤 흐르다가 여기에 이르러 갑자
기 바위를 맞닥뜨린다. 우뚝 솟은 바위는 높이가 거의 오륙 장
정도인데, 물이 어쩔 수 없이 물을 빠져나가려고 다투며 몸을
조인 채 떨어지니, 솟구쳐 흘러지는 것도 있고 서서 뛰어오르
는 것도 있고 거꾸러져 옆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재빨리 곧
바로 쏟아지는 것도 있었다. 어떤 것은 소용돌이치며 끊어오르
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부딪히며 부서지기도 하는데, 많기로는
천 섬의 구슬과 같고 시끄럽기로는 만 개의 우레와 같았다. 나
를 따라 유람하는 사람들 모두 탄성을 질렀고, 나도 마음과 눈
으로 꽤나 놀랐다.

한참 뒤에 비로소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하늘이 물을 생성
하면서 어찌 그렇게 하였겠는가. 물의 성질은 아래로 흐를 뿐
이다. 허(虛)하면서도 실(實)하고 유(柔)하면서도 강(剛)하며,
자연의 이치에 따라 흐르게 함이 없어도 흐르는 것이 바로 물의
일정한 법칙이다. 지금은 바위에 의해 잘못되어 그 형세는 크게
치달리며 다투고 그 형상은 날뛰며 미친 듯하다. 그것을 본 사
람들은 물이 본성을 잃은 것이 탄식할 만한 일임을 모른 채 도
리어 박수를 치며 탄성을 지르니, ⑦ 어찌 그리도 미혹한가. 나
는 오늘날 사람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은 것을 본다. 폭포여 폭포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허
물하랴. 마침내 감개하여 기록하였다.

– 채제공, 「회룡사관폭기」 –

38. ⑦~⑪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 : 영탄적 표현을 통해 원하는 장소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⑧ :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동일한 대상이 시선에 따라 달리 보이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③ ⑨ : 풍경을 감상하는 행위들을 나열하며 자신이 바라본 풍경의 다양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④ ⑩ :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원하는 풍경을 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⑤ ⑪ : 찾고자 했던 장소의 풍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자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9. (나)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폭포의 경관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홍 씨의 장원에서 임시로 지냈다.
- ② 을사년 여름에 내린 큰비로 인해 계획했던 폭포 구경을 미루어야 했다.
- ③ 여정이 험하다는 점을 알고 폭포를 찾기 전에 미리 산길을 정돈하였다.
- ④ 폭포의 기세를 가까이에서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폭포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 ⑤ 폭포의 원류를 건넌 후에야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40. (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는 작가가 금강산을 유람하고 지은 기행가사로, 작가는 이때의 유람 경험을 「동행산수기」라는 글로도 남겼다. 동일한 여행 체험을 작품화한 까닭에 두 작품 사이에 공통점도 나타나지만, 내용이나 서술 방식, 표현 기법에서 차이점도 나타나는데, 이는 [B] 아래의 「동행산수기」의 일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놓아두고 백탑을 찾아러 갔다. 폭포는 물을 뿐이며 떨어졌다. 위에는 얼음이 하얗게 얼어붙어 있고 가운데는 비어서 파란 유리와 같았다. 물은 쿨콸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물을 건너가니 길이 끊어졌다. 따르는 사람에게 명하여 물가에서 밥을 짓게 하고는 것을 벗고 웃자락을 묶고서 갔다. 원치 않는 자는 남아 있게 하고 골짜기 물을 따라 돌을 밟으며 갔다. 머리와 눈이 발의 보조자가 되고 손은 발의 지원자가 되었다. 발꿈치를 디뎌 시험해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나아갔는데 마치 포정이 소를 잡을 때 뼈 사이의 틈을 찾아 칼을 쓰듯이 반드시 바위 사이의 빈 공간으로 가야만 무사할 수 있었다.

- ① [A]와 [B]는 모두, ‘백탑’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 주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자신이 관찰한 자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③ [B]는 [A]와 달리 청각과 관련된 어휘를 활용하여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A]는 여정 중 일행에게 특정 행위를 지시한 이유를, [B]는 일행이 ‘백탑’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⑤ [A]는 비유적 표현을 나열하여 ‘백탑’을 보고 싶은 간절함을, [B]는 섬세함이 필요한 특정 작업에 비유하여 ‘백탑’을 찾아가는 길의 위험함을 드러내고 있다.

41. ①과 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에는 대상이 속한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가, ⑤에는 대상이 속한 세속적 세계를 회피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다.
- ② ①에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⑤에는 대상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담겨 있다.
- ③ ①에는 현재 바라보는 대상에서 느끼는 경이감이, ⑤에는 대상의 현재 모습에만 주목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 ④ ①에는 주위의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상에 대한 찬탄이, ⑤에는 주위의 자연물과 어울리지 않는 대상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 ⑤ ①에는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하는 대상에 대한 놀라움이, ⑤에는 상황에 따라 대상을 달리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담겨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교술 문학은 글쓴이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며, 글쓴이는 체험 과정에서 기준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 접하게 된 대상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교술 문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글을 쓴 목적에 따라 실제 체험에서 얻은 주관적인 감상이 될 수 있고, 개인적 체험에서 깨달은 내용을 확장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독자에게 전하는 교훈적 내용이 될 수 있다.

- ① ‘금강산 좋은 소문’을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던 (가)의 글쓴이가 금강산을 ‘직접 보니 말 모자라 걱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글쓴이의 체험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회룡사 앞의 폭포’를 본 (나)의 글쓴이가 ‘오늘날 사람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하는 것에서 글쓴이의 체험이 인간의 삶에 대한 사유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가)는 ‘금강산’을 찾아가서 본 풍경을 소개하고, (나)는 ‘회룡사 앞의 폭포’를 찾아가서 본 풍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글쓴이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되는 교술 문학의 특징에 해당하겠군.
- ④ (가)의 ‘돌 구경이 더욱 장하구나’와 ‘저 암자는 이 세상이 아니로다’라는 진술과, (나)의 ‘나도 마음과 눈으로 꿰나 놀랐다’라는 진술을 통해 실제 체험에서 얻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감상을 드러내는 교술 문학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바라본 풍경이 ‘듣던 것과 다르’이며 ‘백탑은 이 아니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나)에서 ‘물의 성질’에 대해 생각하며 폭포가 ‘아래로 흐’르는 특성을 지녔음을 새롭게 인식한 것은 기준 지식을 활용해 새로 접한 대상을 평가한 것에 해당하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성터 거닐다 쫓아온 깨진 질그릇 하나
닦고 고이 닦아 열오른 ⑦두불에 대어 보다.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 무르는 옛향기라
질향아리에 곱게 그린 구름무늬가
금시라도 하늘로 피어날듯 아른하다.

눈 감고 나래 펴는 향그로운 마음에
며언 그 옛날 할아버지 흰수염이
아주끼리 등불에 비쳐어 자애롭다.

꽃밭에 놓고 이슬 받아 책상에 올리면
그밤 내 벼개 머리에 옛날을 보리니
옛날을 봐도 내사 울지 않으련다.

- 조지훈, 「향문」 -

(나)

아버지는 두 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다

해가 말끔하게 떨어진 후에야 퇴근하셨던 아버지는 두꺼비부터 씻겨주고 늦은 식사를 했다 동물 애호가도 아닌 아버지가 녀석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나는 녀석을 시샘했었다 한번은 아버지가 녀석을 꺼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 ⑤살짝 만져 보았다 그런데 녀석이 독을 뿐 어대는 통에 내 양 눈이 한동안 충혈되어야 했다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아버지는 더욱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리셨다 칠순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날이 새기 전에 막일판으로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폐달을 밟았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집을 지으셨다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봄이 지났으나 잔디만 깨어났다

내 아버지 양 손엔 우툴두툴한 두꺼비가 살았었다

- 박성우, 「두꺼비」 -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시행을 종결하지 않은 채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44. ⑦과 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과 ⑤은 모두, 화자가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⑦과 ⑤은 모두, 화자가 내면을 성찰하는 가운데 느끼는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행위이다.
- ③ ⑦은 화자가 주워 온 대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⑤은 화자가 지켜보던 대상을 더 알고 싶어 하는 행위이다.
- ④ ⑦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⑤은 화자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는 행위이다.
- ⑤ ⑦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⑤은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와 (나)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지만, 그리움을 형상화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가)는 질그릇의 수수하고 소박한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질그릇에서 연상한 대상을 통해 옛것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꺼비에 비유하여 아버지의 고달픈 삶과 그러한 삶을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 무르는 옛향기’는 ‘깨진 질그릇’의 수수하고 소박한 이미지를 후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에서 ‘자애’로운 ‘그 옛날 할아버지 흰수염’은 화자가 ‘질향아리’에 곱게 그려진 ‘구름무늬’를 통해 연상한 대상으로 볼 수 있군.
- ③ (나)에서 ‘해가 말끔하게 떨어진 후’에야 ‘퇴근’하고, ‘날이 새기 전에 막일판으로 나가셨’던 ‘아버지 양 손엔 우툴두툴한 두꺼비가 살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고달팠던 삶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나)에서 ‘두꺼비’의 ‘독’으로 인해 ‘양 눈이 한동안 충혈되어야 했다’는 것은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나)에서 ‘두꺼비와 아버지’가 함께 ‘지난 겨울’에 ‘긴 겨울잠에 들어’간 상황과 ‘봄이 지’나고 ‘잔디만 깨어’난 상황을 대비한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